



▶ 파키스탄에서 만난 소년들

제공: 백승주

손에 쥐는 것을 놓으면 하늘의 영광이 시작된다

뾰족한 돌을 집어 땅바닥에 네모를 그린다. 그 안에 더 작은 네모, 그 안에 더 작은 네모. 큰 네모와 가장 작은 네모 중간을 상하좌우로 선을 연결하고 교차점마다 돌맹이를 놓는다. 누가 돌맹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얼굴에 새하얀 먼지가 묻도록 돌맹이를 쥐고 친구들이 고심이 많다. 돌맹이를 법칙에 따라 여기저기 놓아본다. 양손 가득 친구의 돌맹이를 다 따 먹었다. 하지만 신나는 마음을 안

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돌맹이를 버리고 빈 손으로 간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리저리 굴려가며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평생 애를 쓴다. 많이 가지게 되면 기뻐하다가도 가진 것을 잃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은 온다. 그 날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그저 돌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 천국엔 상상도 못할 하

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두 손 가득 쥐고 있는 것을 놓아 본다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할 것이다. [GNPNEWS]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요한계시록 21:11,23)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뇨”

2020 美 대선후보 ‘낙태’ 입장...주요 이슈로 부상

지난 5월 미국 앨라배마 주의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여성에게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20년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의 낙태에 대한 입장이 대선을 판가름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낙태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도·급진 성향의 지지층으로 구성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에 강력한 지지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은 이미 미국 낙태 논쟁의 분기점으로 평가받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샌더스 의원과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 또한 낙태금지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낙태 시술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2017년 1월, 낙태를 돕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에 대

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지난 2월에는 낙태 시술 지원 기관에 연방 정부의 가족계획 프로그램 ‘타이틀 엑스(Title X)’를 통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앨라배마 주에서 발효한 낙태금지법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나는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Pro-life)한다. 하지만 강간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예외이며,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앨라배마 주의 낙태금지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 낙태를 금지시키고 있다. [GNPNEWS]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시편 34:11~12) **기도** |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미국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83)

“천국에 가보고 하는 말이세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

일러스트=김경선

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천국에 가보거나 했어요? 본적도 없는 하나님을 자주 믿으라고 하니, 당신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가보지 않아서 천국과 지옥을 당연히 못 믿겠다는 당신에게 기독교는 정말 황당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이야말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볼 수 없으니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옳을까요? 달팽이는 몸을 바닥에 붙여 생활

합니다. 즉 2차원의 생활밖에 할 수 없고, 이해의 차원이 2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느 날 달팽이 두 마리를 발견한 어린아이가 한 마리를 집어 올려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땅에 남겨진 달팽이는 다른 달팽이가 눈앞에서 사라진 것을 아이의 손바닥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달팽이가 3차원의 인간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이 보여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당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차원, 즉 하나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당신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로 당신이 죽을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죄인인 당신 대신 죽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그제야 당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을 겸손히 인정하면, 이제 하나님 차원의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복음기도총서1

내가 구한다
 풀어주는
전도전지
 100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값: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돋아서 읽는 전도전지

*별책부록의 전도전지 100장을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아진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복음의소리 도서출판
 복음과기도미디어

전국 지자체 성평등법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성희롱·성차별 피해자에 동성애자 포함시킬 경우, 종교탄압 가능



▶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외 총 65개 단체는 지난 7월 18일 부천 시청 앞에서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출처: GMW연합 제공)

급진 성향의 정치인과 행정관료들에 의해 전통적인 성윤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모호한 개념을 도입, 전통적인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자를 포함시킨 성평등 사상을 기존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 조례안에 포함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백 개 국내 지자체에서 제정·운영 중인 양성평등 관련조례에는 성희롱, 성차별 같은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진 성향의 정치인들이 동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를 이러한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면서 기독교인과 일반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은 부천시의 문화다양성 조례는 동성애와 성전환자 같은 성적지향의 사람들을 위한 축제를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기독교계와 시민들의 반대로 논란을 빚다가 부결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을 생물학적 구분개념인 성별(sexual)로 구분해왔다. 그러나 최근 성적으로 소수의 위치에 있는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비롯 양성애자 등을 성의 소수자로 여겨, 사회적 성의 구분법인 성(gender.젠더)으로 표기하고자 주장하는 학자와 정치인들이

등장했다. 이 같은 기존 양성평등 관련 조례에 동성애자 등을 성희롱, 성차별 대상 피해자로 추가시킬 경우,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

성(sexual)을 젠더(gender)로 변경하면,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전통 윤리로 간주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럴 경우, 동성애를 '죄'로 판단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성희롱' '성차별'로 문제제기할 때, 우리 사회는 종교탄압이라는 새로운 현실 앞에 서게 될 수 있다. 현재 성평등조례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로는 부천시, 경기도의회 등이 있다.

한편, 국내 지자체들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양성평등법, 성평등법 등을 제정, 운영하면서 성인지 예산을 통해 지역 내 양성평등에 걸림돌이 되거나 여성차별 현상을 시정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왔다. 물론 이 같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인지 예산에 수백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재정집행의 뚜렷한 원칙이 없어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GNPNEWS]

대학의 이슬람 기도처 만들기... "국가 위기 상황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국내 대학의 '이슬람 기도처 만들기'는 다른 종교들에 대한 차별이며 더 나아가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권 학생들의 유치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6일 '무슬림들에게 기도처를 만들어 준다고?'라는 논평을 통해 "각 대학에서 모든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주지 않는데, 무슬림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어주는 것은 드러내 놓고 하는 종교 차별"이라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여러 대학들, 특히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에서 마저 이슬람 신자

인 무슬림 학생들을 위해 자기 학교 내에 이슬람 기도처를 만들어 주고 있다."면서 "다문화 시대에 다른 종교를 배려한다는 의미가 있고, 대학들은 학생들의 지원 숫자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 이슬람권 학생들을 유치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무슬림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무슬림들의 기도가 타종교에 대한 차별과 저주와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기도처를 마련해 주는 것은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들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관



▶ 국내 모 대학교에 설치된 이슬람 기도실에서 무슬림 학생들이 기도하는 모습(출처: hanyang.ac.kr 캡처)

용이니 배려니 하면서 오히려 무슬림 기도를 통해 종교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 갈등과 불안 요소를 키우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는 분명한 해명과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것이 종교간 평화와 우리 사회 안정과 질서를 깨는 것이라면 즉각 무슬림 기도처를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GNPNEWS]

제2기 예수세대 복음캠프 훈련생 모집

다음세대 복음선교사역인 '뉴웨이브 사역원'과 '순회선교단 동북지구'가 주관하는 제2기 예수세대 복음캠프를 8월 5일(월)~9일(금)까지 4박 5일간 진행한다. 의정부 열방교회(부용로 168)에

서 열리는 이번 캠프의 참가대상은 만 13세 이상 청소년, 청년들이며 원서 접수기간은 7월 8일(월)~31일(수)까지. 원서는 웹사이트(newwaveministry.co.kr)에서 내려받아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

으며 웹사이트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웹사이트는 '뉴웨이브 미니스트리'로 검색하면 된다.

문의 ☎ 010-4907-1384, 010-6269-4821 뉴웨이브 복음팀, 이메일: dj1384@naver.com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7.8 ~ 7.20)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이슬람 국가 알제리서 기독교 빠르게 성장

국민의 95%가 무슬림인 알제리에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수가 빠르게 성장해 2015년에 약 38만 명으로 성장했고, 현재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미국 SAT-7 렉스 로저스 박사의 말을 인용,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환난과 핍박에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멈출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알제리의 교회가 고난 중에 믿음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선포하게 하시고, 수많은 무슬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란 가정교회 성도 5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선고

지난 2017년 12월 이란의 보안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던 가정교회를 급습, 투옥됐던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 5명이 7월 5일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시작했다고 국제기독교연맹(ICC)이 최근 밝혔다.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는 이란의 교회는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들의 순종으로 이란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곳곳에서 부정 수급

한국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의 부정수급이 곳곳에서 일어나 한 업체는 3개월 채용 근로자를 정규직이었던 것처럼 속여 1년간 900만 원을 받았는가 하면, 사위를 채용한 뒤 가족관계임을 밝히지 않고 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주님, 그 어떤 정부와 정책으로도 결코 부패한 인간의 마음 근본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모든 국민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법과 제도 그 이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뻐하는 청년세대를 일으켜 주시길 강청합니다.

카메룬서 콜레라로 3개월 동안 48명 사망

서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올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콜레라 감염으로 48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자들 외에 콜레라 감염 진단을 받은 환자는 775명으로 집계됐다고 신화통신이 카메룬 공중보건부 관리를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염병으로 고통 하는 카메룬의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환난 중에 부를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땅으로 회복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7월 29일 ~ 8월 10일

- 7월 29일 ~ 8월 3일 ▶ 강원 속초 / 속초동명교회(김**)010-7423-4953,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윤**)010-4916-1263, 7.28(12~24시) ▶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임**)010-2276-8221, 7.29, 7.31~8.3(10~12시) ▶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7.30(11~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8.2(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8.2(12시)~8.3(12시) ▶ 대구 중구 / 대구서원교회(권**)010-9275-7843, 8.2(20~22시) ▶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8.2(20~24시) ▶ 광주 동구 / 삶이예배인교회(진**)010-4265-0209, 8.3(06~12시) ▶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강**)010-3751-0493, 그외 7교회 진행중.

- 8월 5일 ~ 8월 10일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김**)010-6280-4419, 8.5(0~24시) ▶ 경남 울산 / 울산태화교회(박**)010-9326-7767, ▶ 전남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8.5(10~15시) ▶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8.6~8.9(14~16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8.7(06시)~8.8(06시) ▶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8.8(11~13시) ▶ 인천 연수 / 인천안디옥선교회(이**)010-4200-5237, 8.9(10시)~8.10(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송**)010-6779-4120, 8.9(20~22시), 8.10(14~16시) ▶ 경기 고양 / 그루터기교회(신**)010-4944-3735, 그외 12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한국외국인선교회, 이주민과 셀교회를 위한 ‘훈련과 증식(T&M)’

복음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결단 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은 선교적 삶에 대한 갈망이다.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선교 단체의 선교훈련과정을 소개한다. <편집자>

“교회에서 이주민들을 전도해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한국외국인선교회의 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1년에 인천 주안산업공단지역에 이주민선교를 위해 교회를 개척한 이재승 목사(열방순복음교회)의 말이다. 이목사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성경교재로 외국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해왔지만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을 느껴왔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한국외국인선교회(Friends All Nations, 대표 전철한 목사)의 ‘T&M(Train & Multiply, 훈련과 증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그동안 겪은 시행착오로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지쳐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에 큰 보물상자가 됐습니다.”

이목사는 먼저 교회 리더들을 세미나에 참가시키고 매주 예배에 적용했다. 이주민 성도들의 말문이 열리고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



▶ 바울과 디모데처럼 관계를 형성하며 양육하는 T&M(훈련과 증식) 프로그램 훈련 모습

다. 한국어 예배뿐 아니라 각 나라(베트남, 몽골) 공동체 예배에 생동감이 생기고 결신자와 세례자들이 많아졌다.

이처럼 이주민선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T&M은 미국 OMS선교회에서 선교지의 교회개척을 위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2007년 이 프로그램을 접한 한국외국인선교회(FAN)는 내부 사역자를 대상으로 T&M 워크숍을 갖고, 이 훈련과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년간 내부적으로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FAN선교회는 2012년부터 매월 20~30명의 선교사들과 이주민 사역에 관여하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T&M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전철한 목사는 “실제 사용하면서 40여개국 언어로 제작된 이 교재가 전도와 제자훈련, 그리고 셀교회를

통해 이주민 선교를 시행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유용한 훈련과정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매년 6000개 교회 개척 이뤄져

한편, 이 교재를 제작한 복음주의 초교파선교단체인 OMS선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해 제자화하는 그리스도의 핏줄로 사역하며 T&M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 1만 4000여 명의 동역자들과 매년 6000개의 교회개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63개의 목회훈련 과정을 담고 있는 T&M은 교리를 가르치는 동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목회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학생활동 과정은 훈련생들에게 교회나 셀그룹의 상황을 점검하는 등 교회나 셀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익힐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결국 이 훈련과정은 훈련생들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주님의 기본적인 명령에 복종할 때, 교회 증식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복음전파가 배척을 받는 지역의 사역자가 그룹보다는 개인을 전도해 제자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T&M은 이처럼 오늘의 대형 교회보다는 초대교회 시절 예루살렘 교회나 에베소교회 등 소규모 회중이 활발한 관계가 이뤄지는 가정교회를 염두에 둔 훈련과정이다.

따라서 선교현장이나 교회개척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T&M은 이주민 사역이나 선교현장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에서 필리핀 이주민과 함께

공동체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경식 목사(글로벌미션교회)는 5년째 T&M 훈련과정을 활용해 전도와 양육을 하고 있다.

“이 훈련방식은 초신자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동안 필리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용해본 결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필리핀 이주민은 가톨릭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주님을 영접하지도, 세례를 받지도 않았으며, 때로는 이단에서 생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 훈련과정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보인 경우가 많아요.”

한편, 식육점에서 일하며 T&M 훈련과정에 참여해온 장평우 형제(29)는 “저녁 9시에 퇴근하는 관계로 쉽지 않았지만, 매주 선교사님을 만나 말씀을 배우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며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철한 목사는 “지도와 증식의 사슬로 이뤄지는 T&M 과정은 리더와 훈련생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형성토록 해,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가능한 열매”라고 말했다. [GNPNEWS] C.K.

인도국민당(BJP) 여론조작으로 지역사회 분열... 기독교에 대한 박해 증가

인도의 실업률이 1972년 이후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인도국민당(BJP)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여론조작으로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고 종교자유전문 사이트 RLPB(종교자유기도소식)가 최근 전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분열됨에 따라 BJP를 지지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폭력과 경제적 보이콧을 당하는 등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인도의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차티스가르, 마디아 프라데시, 라자스탄과 같은 북인도 지역에서 BJP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치솟았다. 이에 BJP는 의회에서 과반수를 유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여론조작이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BJP는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후, 주로 페이스북과 왓츠앱을 통해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 개인과 그룹을 겨냥해 제공했다.

전 BJP 데이터 분석가 ‘시밤 산카싱’은 “BJP의 전략은 모든 그룹에 대해 맞춤형된 적을 만들고 그

후에는 BJP가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법으로 BJP는 전통적으로 힌두교 카스트 차별에 대해 온 정령주의 부족들까지도 BJP를 지지하도록 했다. 정령주의 부족들은 그동안 기독교인들과 연합전선을 이뤄왔다. 이처럼 BJP는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에 긴장을 부채질함으로써 승리에 필요한 정치적 변혁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사회 구조는 파괴됐다.

기독교박해 관련 소식을 제공하고 있는 모닝스타 뉴스는 최근 이러한 이유로 차티스가르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도했다.

인도 기독교인들, 신앙 때문에 경제활동 차단당해

지난 3월말 담타리 구 다가한 마을의 기독교인 여덟 가정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경제활동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그 이후 기독교인들은 마을에서 일할 수 없었고, 심지어 자기 소유의 농장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됐

다. 그들은 또한 일하러 마을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됐다. 그들과 대화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는 사람은 벌금을 물렸다. 라자람 니사드는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불가촉천민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4월 6일에 단테와다 구 폰덤 마을의 기독교인 가족들은 마을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죽게 될 거라고 협박을 받았다.

4월 12일, 상과 구 다라시브 마을의 기독교인들은 사타미(힌두종교 중 하나) 의식에 참여해 조상들의 종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세 기독교 가정은 압력에 굴복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사타미에게 돌아갔다. 거절한 사람들은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위협을 받았다. 야쇼다 라트르(31, 세 아이의 엄마)는 “점주들은 우리에게 생필품을 팔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굶어 죽을 준비가 돼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월 2일, 칸커 구 차라마 마을의 기독교 가정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경제활동을 막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이후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살 수 없었다.

또 지난 5월 23일, 숙마지 구 보디구다 마을에서는 150여 명의 비-힌두 부족민들로 이루어진 무리들이 기독교인 세 가정의 집을 부수어 4명의 영아들을 포함한 25명이 집을 잃었다. 젊은 남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고, 여자와 아이들은 지금 나무 밑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



▶ 보디구다 마을의 기독교인들(출처: rlpayerbulletin.blogspot.com 캡처)

는 그리스도를 포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6월 4일, 비하르 주 야나키푸르 마을(차티스가르 북쪽)의 기독교인 사구다스(35)와 그의 부인 수세엘리아 데비는 힌두교 급진주의 무리들에 의해 폭행당했다. 부부는 지난 5월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경제적 위협을 당하고 있다. 부부는 공격 당하기 열흘 전, 마을 수도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당했다. 사구다스 가족을 돕기 위해 이웃 마을의 기독교인들은 물을 길어오고 있었다.

쿠마르 목사는 “나는 2017년부터 이 지역을 섬기고 있으며 세가정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끊임없이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자유기도소식’은 인도 공동체의 긴장이 정치적 이익 집단에 의해 조장되었다는 사실을 인도인들이 깨닫고 성도의 모든 고통을 주님의 영광으로 바꾸어달라고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GN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19)

‘창조는 7일간의 역사’로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창조 이후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가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이라는 간격론자 존 해기 목사는 ‘첫 번째 땅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파괴되었고 두 번째 땅이 있었으며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 번째 땅을 만들 것’이라고 설교했다. 하지만 이걸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는 첫 번째 땅 위에서 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홍수가 약간 재구성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기는 첫 번째 땅이다. 창세기 1장에서 4장을 종합해 보면 사탄은 창조되고 약 100년 후에 하늘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그는 창조 전에 타락했을 수는 없다. 다른 성경구절들과 맞지 않는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벧후 1:20) 그러므로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맞추어진다.



간격론은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토마스 차머스에 의해 고안되었다. 그것은 많은 성경구절들을 위배하고 사탄을 죄보다 먼저 두며 사탄이 일곱째 날 전에 타락했다고 주장한다. 간격론의 주장은 극도로 미약하거나 틀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해야 한다. 그들은 항상 시편 90편을 인용한다.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아니면 베드로후서 3장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구절 모두가 백만 년이 아니라 천 년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 두 구절은 창

조와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일 뿐이다.

간격론의 주장은 틀렸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창조 전에는 무엇을 하셨죠?” 그러나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시간, 공간, 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시간, 공간, 물질에 갇혀 있는 건 우리뿐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다. 언젠가는 이것 또한 멈출 것이다. 천국에는 시간이 없다.

페라 펜톤이 1903년에 번역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말

한다. “일정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태양계를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1절처럼 들리는가? 5절은 이렇다. “이것이 첫 번째 시대의 마지막과 시작이었다” 8절에는 “이것이 두 번째 시대의 마지막과 시작이었다”라고 적혀 있다. 그는 성경이 지구가 수백만 년 되었다고 말하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매... 이는 셋째 날이니라”(창 1:11,13)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를 만드셨다. 만약 그 날들이 수백만 년이라면 식물들이 해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곤충들을 만드셔서 그들이 꽃들을 수분(受粉)시켜 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루가 긴 시간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식물이 태양도 없고 수분시킬 곤충이나 벌도 없이 수백만 년을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히브리어 교수도 창세기의 하루가 24시간의 하루가 아닌 다른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DAY’라는 이 단어가 천 년

같은 주님의 하루를 의미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DAY’가 1800번 사용된 경우 중 앞서 말한 시편이나 베드로후서와 같은 하나 일 뿐 이 단어는 항상 하루를 뜻하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

‘하루’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24시간의 하루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루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셨듯이 낮 동안의 하루가 있고 주님의 날이 있다. 그러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둘째 날이었다.”라고 말할 때는 오늘날의 24시간의 하루가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1975년에 제임스 허튼의 책을 통해 사람들은 지구가 수백만 년 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토마스 차머스가 이 생각을 성경에 넣고 간격론을 고안했고, 그 이후로 이 사상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먹혀왔다. 그리고 다윈의 책이 1859년에 나왔을 즈음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지구가 수백만 년 되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간격론은 아주 위험한 이단사상일 뿐이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우상숭배처럼 드리던 예배시간에 경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와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루람부에는 30개 정도의 크고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3~4일을 걸어서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산속이나 숲속에 터를 닦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우상숭배가 일반적입니다. 매년 6월~8월(방학기간)에 온 가족이 모여 음피시키디(Mpisikidy, 주술사)가 시키는 대로 소뿔을 모아 놓은 곳(지루)에 예배 합니다. 음피시키디, 음광한드루(Mpagnadro)라고 하는 주술사들이 병원에 가지 말라, 약도 먹지 말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다 무고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이들은 돼지 피와 돼지를 금기시해 지루 가까이 돼지가 오면 그 돼지 주인을 잡아서 마을 밖 처소에 격리시키고 위협하고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칩니다. 이들은 파무라나(할례) 후에는 닭이나 소를 잡아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또

이들은 보이는 모든 것이 숭배대상입니다. 산, 강, 별, 달, 짐승, 나무... 모든 것에 빌고 예배합니다.

특히 양쿠시 마을은 우상숭배가 극심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은 정령숭배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상숭배 하듯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술사의 말을 더 신뢰하며 따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 하나쯤으로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빌고 저기서도 빌고, 대상에 상관없이 많이 빌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여깁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교회가 60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복음은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왕이 즉위하여 통치하던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아픈 역사 위에 교회는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



▶ 마다가스카르의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

히 이 나라 자생교단(FJKM)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2000여 곳이고 나머지는 목회자가 순회하며 사역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 대충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종교행위를 한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회자가 부임을 해도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보니 그냥 떠나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것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길 기대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교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루람부 교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배 도중 이루어지던 경매(상행위)를 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지함 속에 복음에 대한 갈망함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한 사람의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길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말라리아에 걸려도 가난해서 약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는 말라리아에 걸려도 약을 살 수 없어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곳은 말라리아 환자가 많기 때문에 약값이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그 약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루람부 병원과 상의해 어려운 이들에게 약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순종이지만 이 땅을 변화시킬 작은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곳 마루람부에 생명의 빛이 비춰져 어둠이 물러나고 복음의 빛으로 이 땅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그 날을 꿈꾸며 찬양합니다.

[GNPNEWS]

마다가스카르=김경숙 선교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070-7417-0408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의 구원이 목회자인 저의 유일한 관심사예요”

십자가 복음에 부딪힌 후 오직 성경만 붙들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을 등한시한 자인지 알게 되었다. 매 장마다 뻑뻑한 노트와 밑줄로 가득한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구광택 목사를 만났다.

“전남 영광, 마을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1년 동안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 후 가방 하나만 들고 광주를 거쳐 서울에서 객지 생활을 했어요. 22살에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은 후 25살에야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도로 교회를 잠깐 나가시던 부모님과 함께 다닌 적이 있었지만, 저는 괜히 이유 없이 교회라는 곳이 싫었어요. 교회는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22살부터 한 3년 정도 가끔씩 이상한 꿈을 꿴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천사 같은 사람들과 무당이 부르는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는 꿈같은 것들이었죠. 누가 해석을 좀 해줬으면 했는데 직장 후배가 교회를 소개했어요. 성도 3명, 전도사 1명이 전부인 교회였어요.”

성도가 4명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

- 신앙생활은 어떠셨나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졌어요. 바로 산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아이들 유치원도 안 보내고 옷도 얻어 입히면서 가진 것을 헌금하고, 예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26살 여름, 교회에 다닌 지 1년이 갓 넘었는데 수요일에 설교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때라 다른 목사님 설교를 외워서 나섰어요. 예배 전 강단 뒤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 연합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주님께서 애처롭게 보셨는지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능력 없음을 안다. 내가 네게 능력을 줄 테니 담대히 외치라.’는 내면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감격과 성령 충만으로 엄청난 눈물이 쏟아졌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응답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다니... 외운 것을 보지도 않고 그동안 들은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올 때는 구름을 밟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9살까지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며 순수한 믿음의



©복음기도신문

말씀에 사로잡힌 구광택 목사(대전 신탄진길보리교회)

시절을 보냈어요. 그 사이 중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고 1990년 총신대(총회신학대학교) 입학, 그후 신대원(신학대학원)을 마치고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 생계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내가 낮에는 김밥을 팔고, 밤에는 10시부터 새벽 4~5시까지 머리에 락을 이고 다니며 장사를 했어요. 밤에는 저도 같이 다녔죠. 아이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계속 지하철과 버스에서 노방 전도를 하며 정말 믿음으로 달렸어요. 그러나 결국 좌와는 뿔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었어요.”

- 어떤 의미이신가요?

“기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학의 재매와 교제를 하고, 대학에서 리더를 맡았는데 회비를 받으면 개인적으로 쓰기도 했어요. 부목사 시절에는 걸로 드러나지 않아도 속으로는 교회조직 안에서 밀리지 않으려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웠죠. 그러다 2002년 신탄진, 지금이 자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온갖 좋다는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니 교인도 많았죠. 산기도도 많이 하고, 이웃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신고해 경찰들이 올 정도로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를 뜨겁게 하고 설교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걸 모습뿐이었어요. 열심히 목회하고 전도했지만 처음 주님을 믿었던 순수한 믿음은 사라지고, 결국 교회 건축, 목회성공의 야망으로 내가 주인된 삶이었어요.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이 되면 죄를 지었어요.”

- 그런 것들이 야망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셨나요?

“장성한 둘째 아들이 복한 선교

를 하던 때였어요. 동료 선교사들을 통해 알게 됐다며 제게 복음학교를 권유하더군요. 처음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다 저도 나름 갈급함이 있어서 2012년 봄 즈음에 가게 됐어요. 5박 6일의 목회자 복음학교였는데, 제가 다녀본 집회에 비하면 모든 것이 허술했어요. 강사도 방송에서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들어본 분이었어요. 그런데 강의를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회자이신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셨습니까?”하고 묻더군요. ‘실제’라는 말을 그렇게 제 삶에 적용해보기는 처음이었죠.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때부터 귀 기울여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담겨있는 총체적인 복음을 들었어요. 훈련기간 중간에 조장이 나누는 ‘나의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목회자였던 저희 그룹은 오히려 그분을 소외시키고 우리는 거룩한 척했죠. 그러다 5일째 되는 밤, 훈련생이던 목회자들이 각자 ‘나의 복음’을 나눴어요. 저의 비참한 실상 앞에 통곡했어요. 모든 사람의 죄가 나의 죄였어요.”

복음의 충격, 비참한 실상을 깨닫다

- 그 후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기존의 가치들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나의 죄 된 실상과 총체적인 복음의 충격이 너무 컸죠. 그동안 점목해왔던 유명한 제자훈련, 기도, 심지어 전도까지 교회 안의 모든 프로그램을 멈추고 한동안 공황상태였어요. 그러나 설교는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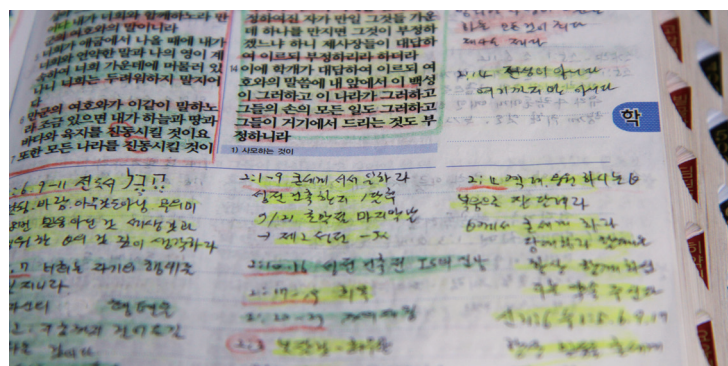
했어요. 그동안의 설교 준비는 주석 읽고, 다른 설교 베끼고, 신앙 서적의 예화를 차용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할 수는 없었죠. 잘 하든 못하든 성경을 붙들고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는 목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통독을 하다가 여러 가지 버전의 번역본과 영어성경, 원어성경 등 7~8권을 펴놓고 문장 하나, 단어 하나까지 세밀히 읽었어요. 말씀을 대하며 주님 앞에 서고 싶었죠. 윤리, 도덕 수준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었고, 성경이 총체적으로 켜어졌어요. 다니엘서든 계시록이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뿔이 몇 개고 짐승이 어떤 나라냐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부흥하고, 성도는 인내로 이 싸움을 싸우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몇 년 정도 사용한 성경만 4권 짜예요.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른 책은 안보고 하나님의 뜻과 단어를 제 방식대로 표시하면서 성경만 깊이 있게 봅니다. 그러다보니 수요일에, 주일예배 모두 강해 설교가 되죠. 처음에는 정리돼 있지 않아 실수도 많이 하고 날카롭게 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온유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획했던 교회 건축도 멈췄고, 모아두었던 적지 않은 금액의 건축헌금도 선교와 구제로 다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과 같이 큰 문제는 주님께 넘어갔지만, 제 용돈 몇 만원과 같은 작은 돈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요. 잘 다루심을 받다가도 넘어지고, 아직도 싸웁니다. 성도들이 제게 이런 부분을 물으면 정직하게 나눕니다.”

크고 작은 모든 영역의 주권이 주님께

- 복음이 실제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모두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시죠. 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그냥 주셔서 받으면 되죠. 그렇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이신 아들을 못 박으시며 내어주신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명 전부로 받지 못하는 것도 결국 주님께 나를 넘겨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거죠. 저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혈과 육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 속에서의 싸움이죠. 상황이 어떠해도 주님과 바로 서면 기쁘



©복음기도신문

▶ 배곡이 필기되어 있는 구광택 목사의 성경책

-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은혜를 나누시는지요?

“저희 교회는 일주일마다 두 번 성경 공부와 수요일예배, 주일예배를 드려요. 그 시간에 성경 텍스트로 말씀보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예요. 로마서, 에베소서 50번씩 읽으라고 했는데, 주님은 로마서 안에서 복음을 충분히 말씀하셔요. 저에게 딜레마가 있다면 정말 복음을 알겠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 정말 알겠는데, 실제 저의 모습이 100%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떤 싸움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헌금의 본질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재정은 전부 선교와 구제로 흘러가죠. 이전에 계

고, 조금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틀어지면 고통스러워요.”

-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이전에는 구원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없었어요. 구원은 따 놓은 당상으로 아예 제쳐버린 거죠. 제 관심은 오직 목회가 빨리 안 된다든지, 성도들이 나간단든지 하는 것이었어요.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관중인데 교회 일들이 안 될 때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고민했어요. 나의 욕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복음을 듣고 엄청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구원에 대해 해결이 안됐어요. 주변 후배나 동료들은 ‘그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냐?’고 하죠.”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의 복음 (1)

은혜의 바다로 더욱 나아가라

여름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중엔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고 깊은 바닷물 속에서 수영을 즐기는 사람보다 수영복을 입은 채 바닷물과 상관없이 모래해변을 거닐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바닷가에 와서도 바다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다 같은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맡기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지표는 성전에 대한 그들의 태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불과했다. 그와 같은 태도로 나아가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더럽혀진 그분의 성전을 파괴해 버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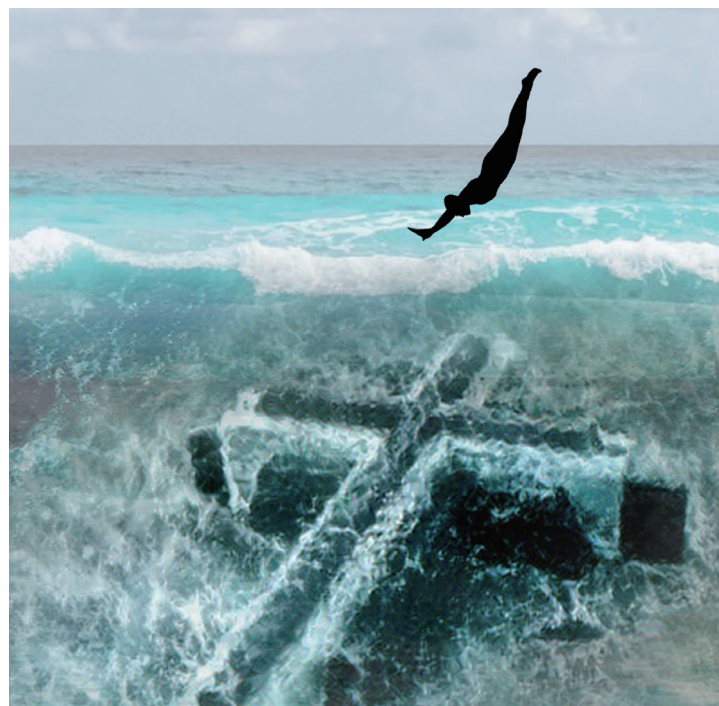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점인데, 놀랍게도 주님은 자격 없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성전 환상(겔 45~47장)을 통해 확증해 주신다. 회복된 성전 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물이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물은 발목에서 무릎, 허리를 넘어 자기 존재를 완전히 덮을 만큼 차고 흘러넘친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발목 정도만 차도 감사한데,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나의 전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진 생명의 은혜

거센 은혜의 강물과 바다는 나의 힘으로 건너가거나 저항하기는커

녕, 오히려 나를 끌고 간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닿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해(死海)도 은혜의 물이 덮이면 생명의 장소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주님의 가장 은밀한 마음 중심이 은혜로 보여진 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다. 그 복음이 닿는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대는 이 영광에 참여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맞은 영광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깊은 은혜의 바다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조그마한 즐거움들이 사라질까 겁나서 머뭇거리고 있는 않는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찬 302)’의 고백처럼 은



일러스트= 노주나

혜의 바다가 나를 잠식시키고 움직여 갈 때까지, 일전을 축광하고 믿음의 걸음을 한발 더 내딛어야 한

다. (2017년 6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과 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복음을 영화롭게하라”

GLORIFY THE GOSPEL!

Text Book : 3만원
EFL : 2만 5천원

헤브론원형학교와 헤브론교육선교대학이 복음스튜디오 수업에 사용한 영어 복음 교재가 출간됐다. 주교과서로 사용돼온 ‘GLORIFY THE GOSPEL! Text Book’과 영어교육을 위한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교재 두 종이다. 집필은 헤브론 전략적 교육선교 공동체(Hebron Strategic Educational Mission Community, Hebron_SEMIC)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The textbooks used in Gospel Study class in The School. Hebron and Hebron Educational Mission College were published. These are the two main textbooks: ‘GLORIFY THE GOSPEL!’ and ‘EFL textbook’ used for English education. Each book costs 30,000 won and 25,000 won. Hebron Strategic Educational Mission Community (Hebron_semic) also joined to write it.

구입문의 Purchase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복음을 사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건 이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누가 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다면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이 ‘실제’되었다고 혼자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거죠. 큰 것은 다 넘어갔는데 작은 것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것, ‘주님이 정말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싸움들을 그래서 하는 거죠. 얼마나 사탄이 강력하게 공격하는지... 저는 지금도 그 고민을 해요. 그런 고민 속에서 주님께 올인하고 더 달려간다면, 바울이 말했듯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갑니다.”

- 성도들도 말씀 앞에 치열할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복음을 나누다 보니 저희 교회는 거의 다 복음학교를 하고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다른 교회들은 다 편하게 하는데 굳이 내가 기준을 높여서 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해버리나?’ 그런 고민을 한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은 명확합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이라는 것.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가 아니라, 정말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인가에 진정 관심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부족하지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증인이 되는 거죠. 늘 그 고민이 있어요. 오직 복음과 말씀, 그리고 기도가 전부입니다.”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유튜브로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 영상을 보고 장거리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호주에서도 몇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조건 없이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계속 달려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제 자신은 정말 복음을 위해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충분합니다. 최종 목표인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놓치지 않고 가고자 합니다.” [GNPNEWS]

E.J.



돈 없이 떠난 전도여행에서 주님 바라보기

나는 10대 다음세대들이 다니는 기독교에서 교생으로 한 학기 동안 섬기면서 최근 학생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무전(無錢)전도여행을 다녀왔다. 우리 팀은 학생 10명과 지도 선생님과 나를 포함 모두 12명이었다.

학년이 높은 조장과 부조장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동생들을 잘 챙겼다. 이동하는 내내 가장 어린 형제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짐을 무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매의 가방에서 성경책과 물병을 자신의 가방에 옮기며 챙기기도 했다. 교생이면서도 학생들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아이들의 얼굴에 힘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법도 한데 모두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무전여행이었기 때문에 식사도 주님께서 허락해주셔야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팀에게는 점심이 허락되지 않았다. 선생님들 간의 SNS에서는 이 팀, 저 팀이 먹을 것을 제공 받았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내 마음은 조금해지기 시작

했다. 그러나 지도 선생님은 흔들림 없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초점 집중 되어 우리를 이끄셨다. 아이들에게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때 나의 정신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개인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났다.

전도지를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특별한 만남들이 있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지금 돌아보니 내가 보아도 참 무식한 전도였다. 그러나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더욱 확증되었다.

전도하던 중에 한 조선족 아주머니를 만났다. 아주머니와 꽤 긴 시간을 걸으면서 이야기했는데, 헤어질 때 아주머니는 “이해가 안 돼.”라고 하셨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한편, 나는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생각이 들었다.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며 감사했다.

때로는 전도하는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계속 질문하게 되었다. 아이들도 전도할 때 거부하는 분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과, 돈이 없는 것과, 먹지 못하고 잘 곳이 없는 상황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공급 받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나눴기에 해결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것을 가르쳐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는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최선이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음을 배우게 하셨다.

짧고도 긴 전도여행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왔다. 먼저 도착한 팀들과 선교사님들이 우리 팀을 환호성과 함께 맞아주셨다. 우리 팀 아이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흥분하며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들



일러스트= 이수진

이 스쳐 지나갔다. 주님은 선교사 자녀로 유년 시절 선교지에 있었던 때를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상황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을 것을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전도여행 가기 전에 아이들이 제출했던 기도 제목을 보게 되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으로 보는 시간이었다.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주님이 하셨다. [GNPNEWS]

그레이스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본지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북한 인권문제 논의돼야, 진정한 북한 비핵화 가능”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미북 정상간의 만남 이후 미북간 대화 재개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문제도 협상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며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John Sifton) 아시아국장은 미북 협상 과정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오로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만 집중하는 대북 접근법으로는 북한과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프턴 국장은 “우리뿐 아니라 (핵)무기 전문가,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의) 투명성, 유엔과의 협력, 그리고 인권에 대한 진전 등 더 큰 사안을 다루지 않고서는 북한과 성공적인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해왔다. 그는 이어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의 군축협상 및 유럽 발칸반도의 Dayton 평화협정 당시 모두 인권문제가 협상 과정의 일부로 다루졌던 만큼, 인권문제를 비핵화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드문 경우”라고 지적했다.

냉전 시대, 미소 협상에서도 인권문제 다루져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C)의 그렉 스칼라투(Greg Scarlatou)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 북한 수용소의 수용자들은 일주일에 7일간 강제노역을 강요받고 있다(출처: mirror.co.uk 캡처)

지난 30일 판문점 회동을 포함해 3번이나 만났지만, 여전히 북한 인권문제가 제대로 제기되고 있지 않다.”며 “인권문제가 (협상)테이블에 없으면 (대북) 대화의 다음 단계에서 이 사안을 집어넣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조속히 인권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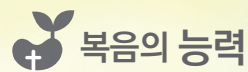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지만, 그 이후에는 인권문제가 점점 도외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안킷 판다(Ankit Panda) 미국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 겸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더 디플로맷’ 선임편집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인 트위터를 통해 “대북외교가 핵위협을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는 동안, 북한의 경제 미래와 인권 미래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해방을 위한 단체 ‘자유조선’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공허한 몸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자유조선 임시정부는 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분쟁보다는 선의를 가진 파트너, 즉 동반자 간의 대화를 믿는다.”며, “굶어 죽은 수백만 명과 수용소에 수감된 수십만 명, 그리고 납치 및 살해된 수백명의 외국인들이 북한 정권은 선의로 행동한 적이 없고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확산하고 대량학살을 자행하면서 핑계만 찾고 있다는 것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공허한 몸짓은 전 세계를 기만하고 부도덕한 범죄 정권에 힘을 부여하기만 한다. 억압된 주민과 진정한 평화를 위해 변화는 반드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GNPNEWS]



단 한 번의 영적 체험

사람들은 체험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영적 체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나친 체험 추구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대한 체험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역사적 부활 사건을 실제로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만일 자신의 체험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내다 버려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체험은 당장 현실 가운데 그 증거를 드러낸다. 단 한 번 하나님과의 연합을 체험한 후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는가! [GNPNEWS]

<제자도(2012), 오스워드 챔버스>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안이숙 <죽으면 죽으리라>

스스로 실격한 순교자로 고백한 산 순교자의 이야기



지인의 서가(書架)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반가운 책을 만났다. 아니, 책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산 증인의 삶이다. 안이숙. 벌써 이삼십 년 전 일이다. 십대 때 깨알같이 쓰여진 한 권의 책 '죽으면 죽으리라'를 읽으며 느꼈던 그

때의 감동이 되살아났다. 그때는 다 못 읽었지만, 이번에는 십여 년 간격으로 출간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라는 그분의 책을 중고서점에서 찾아 읽고 또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히 책 몇 권으로 은혜를 받아보자는 마음도 아니었고, 죽음(생명)까지도 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증인들을 보고 싶은 갈망이었다. 무엇보다, 순교의 증인들처럼 주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일생을 순전히 달려가 마치고 싶은 주님을 향한 간구이기도 했다.

사실, 70년대 이후 세대에게는 어쩌면 낯선 이름과 책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외치셨던 최권능 목사님, 현대의 엘리야로 불렸던 박관준 장로님과 같은 순교자들과 평양 감옥에서 함께 했던, 그러나 스스로를 실격한 순교자라고 고백했던 산 순교자의 이야기이다.

주기철 목사님과 평양 경찰서 유치장 감방 맞은편에서 1년을 마주하여 지내며, 말할 수 없으니 손가락으로 글을 쓰면서 했던 신앙의 교제와 대화들, 죽도록 맞고도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 했던 최권능 목사님과 함께 보냈던 일화들, 여학교 교사로서 일제의 신사참배의 명(命) 앞에서 홀로 고개를 숙여 절하지 않았던 일이나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일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유황불로 일본은 망한다'고 외쳤던 일들, 이후 6년의 수감기간 동안, 좁고 더러운 감옥 안에서 세상이 포기했던 천태만상(千態萬象)의 죄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끝내는 회심시켰던 일들을 통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한 영혼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웠다.

주님은 그를 순교자로 영광 받으시기보다, 살아있는 순교자로 영광을 받으셨음을 본다. 사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광복과 함께 꿈에도 생각 못했던 출옥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공산사회주의자들의 위협에 목숨 걸고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온 후, 주님의 뜻을 따라 도미(渡美)하여 미국 내 국내선교사로 남편 목사님과 함께 미국 전역을 다녔다. 또, 귀국 후 80년 세계복음화대회 때 간증자로 나섰다. 주님은 그를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 하게 하셨다.

책을 읽으며 몇 번을 울었는지 모른다. 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던 증인들의 모습 앞에서,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십 수 년을 살아왔지만 난 얼마나 여러 면에서 가난해지지 못하고, 내 감정과 처지에 얼마나 연연해하는가.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은커녕, 수시로 불평과 원망이 내 철없는 삶 속에서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 때, 지나고보니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였다.

중간에 읽다가 책을 덮고 나서

한참 울고, 또 어디선가는 한참 웃다가 다시 책을 들었다. 모든 내용을 다 기억 할 수는 없지만, 증인의 책 제목과 내용들에 나타나 있듯이, 이것만큼은 꼭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싶다.

죽음 이후에도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진리다. 순간순간마다 일상과 사역의 현장에서, 또 내 육체와 자신의 한계 상황 앞에서 기억해야 할 진리다. 무병하고 튼튼하고 건강해도 누구나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의 지시를 따라 "오라!"하실 때, 지체 없이 모두 갈 수밖에 없는 죽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죽음 이후에도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기에,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맡겨주신 한 영혼을 진정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 놓칠 수 없다. 그것이 진짜다! [GNPNEWS]

양동원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리더의 자리는 주님의 선물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복음을 만난 이후 여러 모양으로 신앙훈련과 섬김의 자리에서 쉬지 않고 달렸다. 피곤한 마음에 잠깐 쉬고 싶을 때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 기도모임이 만들어졌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영혼이 쉬고 싶었다.

격주로 있는 기도모임에 참석하면서 섬김이는 아니었지만 모임 준비를 옆에서 도왔다. 몇 개월이 지나 섬김이들이 바뀌면서 내게도 섬김이 콜링이 들어왔다. 이렇게 옆에서 돕느니 차라리 섬김이로 함께 하자는 단순한 마음으로 응답했다.

그렇게 시작된 섬김이 자리에서 어느 날 새로운 리더를 뽑기 위해 1박 2일 모임을 갖기로 했다. 모임 날이 다가올수록 나를 리더로 시킬 것 같은 부담이 계속 더해지면서 가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든 못가는 핑계를 만들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마땅한 핑계를 찾지 못해 모임에 참석했다. 계속된 부담에 거절할 생각만 가득했다.

반갑지 않은 선물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녁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해수욕장

이라는 큰 글씨가 보였다. 오랜만에 본 바다가 너무 좋아서 어느새 부담은 사라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밤바다를 향해 뛰어 갔다. 그런데 갑자기 '순종하면 선물 줄게.'라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들렸다. 곧바로 설레임은 싹 가셨다. 뛰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 말했다. '주지 마세요. 받지 않을 거예요. 주님 선물 안 반가워요.'라고 답하고 애써 외면했다.

다음 날 리더를 정하는 자리. 피하고 싶었지만 여러 대화 끝에 분위기는 내가 리더가 되는 쪽으로 흘러갔다. 제비뽑기를 하자고 우겼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도 내가 될거라고 했다. 나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반갑지 않은 선물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어린아이처럼 하기 싫는데 왜 시키냐고 짜증을 부리며 울었다.

그리고 한 학기만 참다가 다른 섬김이 엄마에게 넘기자며 마음을 도둑이며 시작했다. 하지만 각자 사정으로 섬김이들이 몇 명 줄었다. 선물이라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주님께 더한 짜증을 부렸다. 주님은 짜증을 내는 나에게 이것이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 해주셨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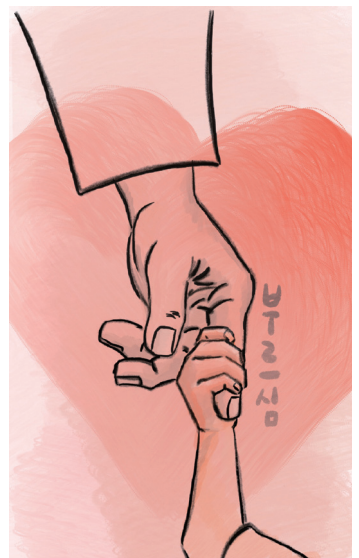
께 허락된 시간에 와서 학교 주방을 섬기기도 하고 기도모임도 이끌어 가게 하셨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의사소통을 배우다

담당 선생님들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묻지 않고 당연시하고 진행했던 일들과 또 한편으로는 마치 판단력이 부족한 자처럼 느껴지는 작은 것도 묻고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의사소통 과정을 조금이나마 배워가게 하셨다.

이런 시간을 통해 짜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로 변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지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

어느새 한 학기만 하고 그만 두려던 직임은 세 학기까지 이어졌다. 그래도 부담은 여전했다. 다음 학기 리더를 위해 기도했고 마음의 씨름이 있었지만 순종할 것을 마음으로 받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다시 리더인가?' 물으며 기도했다. 근데 주님은 이제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의 무능함에 가두는 자리로 내려가라는 마음을 주



일러스트-고은선

셨다. 그렇게 리더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더의 자리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섬김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마음의 지경을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며 넓혀 주셨다. 여러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맛보게 하신 주님께 고백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NPNEWS]

정혜금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6. 27 ~ 7. 16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고은영 권순호 김경선 김사회 김선희 김수미 김애심 노은옥 박성규 박종순 송경순 안민자 안수경 오종모 유국주 윤경석 은종숙 이동희 이삼연 이 순 이영옥 이준진 이지수 이진희 정영숙 정효진 조상국 조형광 차인순 최강용 최근희 최정숙 하은숙 황지환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문광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복현교회 산곡교회 샘물교회 선한목자교회 쉐 신한테크 양덕원감리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주소망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안꿈을이루는교회 헝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